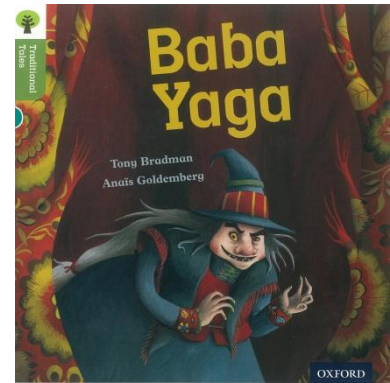




Stage 7



7 단계 '바바 야가'

작가 토니 브래드맨

삽화가 애네이즈 골덴버그

이야기에 대하여

트래디셔널 테일즈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화입니다. 바바 야가는 러시아와 동유럽 동화에 많이 등장하는 마녀입니다. 이 책은 고운 마음씨를 가진 나타샤가 어떻게 나쁜 마녀를 무찌르는가를 보여줍니다. 시대를 넘어서서 전해지는 이 이야기를 함께 반복해서 나누어 봅시다.

함께 읽기를 위한 가이드

함께 말하기

- 책 표지를 보고 함께 제목을 읽어보세요. "바바 야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니?" 하고 물어본 후, 그녀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바바 야가는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 하고 물어보세요.
- 처음의 네 페이지를 읽은 후, "나타샤가 바바 야가의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고 물어보세요.

이야기 속 단어들

- 아이들이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calmed, nervously, raging, scowled, thread 같은 단어들은 조금 어렵고 생소 할 수도 있습니다.
- 아이들이 이 단어들을 소리 내어 읽고,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필요하다면, 아이에게 단어들을 읽어준 뒤, 뜻을 설명해주어도 좋습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아이에게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해보세요. 아이는 한 챕터 이상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 이야기에 쓰이는 표현을 알려주세요. 옛날이야기라는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알려주세요. 예) Once upon a time...
- 서술적인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세요. 예) muttered, screamed
- 아이가 책을 읽으며 많은 표현들을 읽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표현에 덧붙여진 구두점 에 유의하여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책을 읽어보세요.
- 중요한 문장은 의미에 유의하여 반복해 읽어보세요.

아이들을 많이 칭찬하여 책을 계속 읽게 해주세요!

P2)

아주 오래 전 옛날, 나타샤라고 불리는 한 러시아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타샤의 엄마는 그녀가 아기때 돌아가셨지만, 나타샤와 아빠는 매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빠가 다시 결혼을 하기 전까지 말이지요.

P3)

나타샤는 다정하고 친절하며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새엄마는 나타샤를 너무 싫어하고 아빠가 보이지 않을 때면 나타샤에게 무섭게 굴고는 했어요.

어느날 나타샤의 계모는 나타샤에게 특별히 해야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P4)

“나는 음.. 내 여동생으로부터 실과 바늘을 좀 빌려와야 할 필요가 있어”

계모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타냐 네가 지금 당장 가.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살고 있고 이름은 바바야가야.”

P5)

나타샤의 마음은 가라앉았어요. 나타샤는 그녀의 계모가 무슨 일을 벌이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나타샤는 이 여동생에 대한 소문이 너무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바야가를 악마 마녀라고 부르는 것을 계속 들었었기 때문이지요.

P6)

나타샤는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지만 그녀의 계모는 꼭 가야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타샤는 한숨을 쉬며 그녀가 가는 동안 필요한 음식과 낡은 냅킨을 스카프로 묶어서 썼어요. 그리고 머리를 어두운 나무들을 향한 채 걸어갔답니다.

P7)

나는 정말 여기가 기분이 나쁘구나..." 나타샤가 걸어가면서 중얼거렸어요.

나타샤는 숲으로 들어가는 들판을 가로질러 들어가 불이 밝은 곳으로까지 결국 오게 되었어요. 거기서 나타샤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두막집이 닭 다리를 한 채로 서 있는 것이었어요.

P8)

나타샤는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문이 거의 고통 소리 같은 삐걱이는 소리를 냈어요.

"왜 이렇게 오래되고 낡은거지?" 나타샤가 말했어요. 그리고나서 근처에서 찾아낸 약간의 기름을 가져다 발랐어요.

P9)

그러자 다음에는 커다란 무시무시한 개가 나타샤를 보면서 으르렁거렸어요. 나타샤는 그녀가 가져온 냅킨 속의 약간의 음식과 다정한 말들을 하면서 커다란 개를 진정시켰어요. 그 때 바바야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P10)

바바야가는 불타는 붉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이빨은 철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나타샤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부탁드려요, 바바야가" 나타샤가 말했어요.

"당신의 언니가 실과 바늘을 빌려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마녀가 말했어요.

바바야가는 그녀의 얇은 입술을 활더니 나타샤를 위 아래로 쳐다보았어요.

"음, 이 예쁜 것아 내가 실과 바늘을 찾아올 때까지 이리 와서 내 오두막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좋겠구나."

P12)

바바야가가 휘파람을 불었고 그녀의 오두막이 달려왔어요. 나타샤는 걱정스럽게 오두막에 올라탔고 어둠속에 서 있게 되었어요.

유일한 불이라고는 구석에 있는 커다란 철로된 난로에서 나오는게 전부였어요.

P13)

“네 집처럼 편하게 있거라” 바바야가가 사악한 웃음과 함께 말했어요.

“나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다. 날도 늦었는데 저녁을 먹고 가는게 좋겠구나?”

P14)

마녀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은 채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나타샤는 바깥을 살짝 보았어요. 나타샤가 보기를 바바야가는 실과 바늘은 전혀 찾지 않은 채 난로에 채울 통나무만 가져오고 있었어요.

“네가 보기에도 오늘 저녁 메뉴는 유일하게도 나타샤 너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겠지?” 나타샤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쉬잇 하고 들렸어요.

“바바야가는 예쁜 작은 소녀들을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P16)

나타샤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꿈쩍하게 마른 검은색 고양이가 그림자로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음, 난 바바야가가 매우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 나타샤가 찡그린채 말했어요.

“그리고 난 바바야가가 고양이 너한테 음식을 충분히 먹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지. 자 여기, 내가 가진 음식의 마직만 남은 부스러기 조각들이야.”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소녀가 다 있다니!” 고양이가 놀라 외쳤어요. “

“너도 알다시피,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있어..”

P18)

“이것들을 가져가. 그리고 네 삶을 위해 달아나.” 고양이가 말했어요.

고양이는 나타샤에게 수건과 머리빗 그리고 작은 돌 하나를 가져다 주었지요.

“바바야가가 문을 닫을 때 너의 뒤로 하나씩 그것들을 던져줘.”

P19)

나타샤는 고양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뒤 오두막으로부터 조용히 점프해 나왔습니다. 개가 나타샤를 보았지만 짖지 않았고, 문은 끼익거리는 소리 하나 없이 열고 닫혔습니다.

P20)

바바야가의 저녁 식사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마녀는 참으로 화가 났습니다.

“니가 나한테 경고를 해줬어야지!” 바바야가는 고양이와 문가에 있는 개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왜 내가 그래야 하지?” 고양이가 말했어요.

“나타샤는 우리들한테 잘해줬고 바바야가 마녀 너는 항상 우리한테 끔찍하게 구는데?”

P21)

바바야가는 노력하면서 그녀의 발을 쿵쿵 밟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바야가는 서둘러 나타샤를 쫓아갔어요.

P22)

나타샤는 그녀가 할수 있는한 빠르게 숲을 통과해 달려나갔어요. 나타샤는 곧 숲에 있는 작은 모든 생물들이 그녀를 앞질러 뛰어가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바바야가는 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P23)

“지금 당장 멈춰서 포기하는게 좋을걸!” 마녀가 소리쳤어요.

“너는 절대 못 도망가!”

나타샤는 계속해서 뛰었어요. 하지만 바바야가가 거의 나타샤를 잡으려 하는 순간이었어요...

P24)

갑자기 나타샤는 고양이로부터 가져온 것들과 고양이가 했던 지혜로운 말들을 기억해냈어요.

나타샤는 수건을 그녀 뒤로 던졌고 수건은 갑자기 격렬한 강으로 변해 나타샤와 마녀 사이에 놓이게 되었어요.

P25)

“성가시게 이런 일이!” 바바야가는 그녀의 주먹을 떨면서 소리쳤어요.

“휴 다행이다!” 나타샤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바야가가 강을 쉽게 마셔버려서 나타샤는 다시 도망가야만 했어요.

P26)

나타샤는 빠르게 숲으로부터 나와서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갔고, 바바야가는 나타샤 가까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나타샤는 그녀의 어깨 뒤로 머리빗을 던졌고, 머리빗은 갑자기 또 다른 숲으로 변했어요.

P27)

“성가시게 이런 일이!” 바바야가는 주먹을 떨면서 소리 질렀어요. 나타샤가 “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마녀는 나무들을 통과하면서 통로들을 씹어대기 시작했어요.

P28)

바바야가가 거의 다가왔을 때 나타샤는 마지막 찬스 하나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마녀가 나타샤의 머리에 거의 닿으려 한 순간 나타샤는 작은 돌을 던지고 말았답니다.

바바야가가 돌에 맞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돌이 산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지요!

“제대로 되기를!” 나타샤가 미소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향했지요.

P30)

나타샤의 계모는 나타샤를 보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나타샤는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전부 이야기했고 모든게 계모가 계획한 일이라는 것도 말했어요.

아빠는 너무 화가나서 아내에게 가방을 싸서 나타샤와 아빠의 삶으로부터 영원히 없어져달라고 나가게 했어요.

P31)

“속이 시원하구나 쓰레기 버린 것처럼!” 아빠가 말했어요. 나타샤는 미소지었습니다. 그녀도 동의해야만 했거든요.

다시 말하기를 위한 가이드

줄거리 이야기하기

- 나타샤의 성격과 그녀가 바바 야가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왜 동물들과 문이 나타샤의 탈출을 도왔을까?” 하고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의 도덕성- 선이 악을 어떻게 물리치는가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어떻게 그 친절이 돌아오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 주인공 바바 야가와 나타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아이와 함께 이 주인공들을 나타내주는 단어들을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재미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인공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이야기 지도를 보며 줄거리 말하기

- 책을 다 읽고 난 뒤, 32 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지도를 이용하여 다시 함께 줄거리를 이야기해보세요. 각각의 그림은 이야기의 주요장면을 보여줍니다.
 - 아이가 스스로의 표현을 사용해 이야기를 다시 말해보게 하세요. 아이와 함께 하거나, 또는 서로 번갈아 가며 줄거리를 이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 등장인물마다 목소리를 달리하여 그들의 성격과 변화되는 모습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세요.

뒷 표지

바바 야가

나타샤는 바바 야가를 만나기 위해 캄캄한 숲 속으로 들어갑니다.

별로 예감이 좋지 않군요.